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중국집이 변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는 오래된 중국집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화상(華商)이라고 불려 놓고 장사하는 중국집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다. 1883년, 임오군란을 수습하는 와중에 청나라 군대가 인천항에 도착했다. 이때 같이 온 40여 명의 상인이 화교의 시조인데, 그 후 이들 중 얼마나 한국에 남아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군대와 함께 상인이 왔다는 사실이다. 청나라가 한반도를 중요한 장사의 무대로 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화교는 처음에는 주로 무역과 도소매업에 종사했는데, 점차 음식점에도 진출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맞았던 모양이다. 원래 이국(異國)의 음식은 어느 곳에서나 사랑받는다. 꼭 맛을 떠나서 색다른 언어·인종·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작은 세계가 식당이기 때문이다.

중국집이 이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40여 년을 헤아린다. 그 세월보다 더 많은 부침이 있었다. 먼저 국적 문제다. 한국에서 식당을 하는 화교는 주로 대륙의 산둥성에서 왔다. 한때 중국 본토에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국교가 끊어져 버린 것이었다. 90년대에 다시 정식 수교하기 전까지 중국은 '중공'으로 불리며 대표직인 한국의 적대 국가였다. 한국의 화교는 공산국가 수립되기 전에 온 사람들이었다. 수교가 안 되니, 졸지에 난민이 되었다. 난민이란 말이 좋아 난민이지, 문자 그대로 나라 없는 백성이다.

나중에 중화민국(타이완)으로 흡수되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그들로서는 엄청난 고통이었다.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화교에 우호적이지도 않았다. 생각해 보면, 한국전쟁 때 통역으로 활약하거나 특수부대 등에 화교가 자원입대하여 맹활약하면서 '대

한민국'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보여 주었지만 배타적인 분위기까지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들이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은 90퍼센트 이상 식당이었다. 대도시에서 주로 문을 열었지만, 경쟁이 심해져 점차 읍면 단위로 진출하여 전국적으로 중국집이 성행하게 되었다. 결혼식을 치르기도 하는 거대한 요릿집도 있었으나, 대개는 이웃의 자그마한 식당이었다. 몇 가지 요리와 면 그리고 밥을 주로 팔았다. 그것이 우리 식생활에서 편입되다시피 한 짜장면·짬뽕·볶음밥·탕수육이다.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 있는 화교 중국집의 기록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중국집은 60~70년대에 가장 성행했지만 80년대 들어 점차 기세를 잃었다. 기술을 배운 한국인들이 중국집 시장에 진출하던 시기다. 결정적으로 90년대에 우리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화교 사회는 대환란을 겪는다. 본토 지역 출신인데도 수교가 끊기면서 그동안 타이완과 교류해 왔는데 인민공화국이 다시 한국의 공식 '중국'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태의 여파를 여기서 깊게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중국집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화교 후손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식이 많아졌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우선 젊은 세대는 한국에 많이 동화되었다. 귀화도 많았다. 부산에 한 화교 친구가 있는데, 그는 롯데리아 언츠 광팬이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부산 시민이다. 화교의 정체성과는 별개로 한국의 시민으로 그들은 살아 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교류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기도 했다. 중국과의 무역과 기업의 현지 진출 등에 화교들이 맹활약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3·4세대들은 양쪽 나라의 언어가 완벽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 한국인과 연결되어 있는 까닭이었다.

화교 중국집은 원래 할아버지-아버지-아들로 주방장이 전수되었다. 고급 기술도 비밀리에 전해졌다. 그러나 대가 끊어지기 시작했다. 젊은 화교들은 식당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자리를 이을 생각이 별로 없었다. 힘들고 고단한 주방 대신 앞서 말한 대로 세계와 중화권을 무대로 한국과 함께 일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오래된 화교 식당에 다시 화교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다. 화교 중국집의 가치를 알아보는 시선이 생겼고, SNS 등으로 번져나가면서 '일할 맛'이 나고 있다고 한다. 중국집에서 사라졌던 요리도 부활하고 있다. 짜춘결(짜춘권), 멘보샤, 중국식 우동, 기스면 같은 음식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멘보샤 같은 경우는 아예 인터넷에서 즉석 식문화되어 팔릴 정도다. 탕수육도 배달되는 간편 요리에서 '부먹(소스를 부어 먹기)'이나 '찍먹(찍어 먹기)'이나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잘 하는 집들을 찾아가는 애호가들이 생기면서 가치를 되찾고 있다.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필자가 중국집에서 오래 일한 노장 화교들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 그들을 만나기 시작한 20여 년 전만 해도 매우 비판적인 말을 들었다. 그들 노장 요리사들은 "이러다가 산동에서 시작한 한국식 중화요리의 역사가 끊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기도 했다. 이제 새로운 중화요릿집의 시대가 열리는 듯하다. 놀랍게도 젊은 화교 요리사와 더불어 젊은 한국의 새로운 소비자들도 그 주인공들이다. 140여 년을 이어 온 옛 중국집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덧붙이자면 광주 전남의 화교 중국집 노포(老舖: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들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지금까지 남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음식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유동훈 광주기독병원 비뇨의학과 진료과장

정복 가능한 전립선 비대증

도에 남아 있던 소변이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흘러나오는 현상)이 나타난다.

힘을 주는 방광의 근육은 서서히 두꺼워지면서 배뇨수축 기능이 떨어지게 되며, 두꺼워진 방광의 근육은 소위 두꺼운 풍선처럼 편하게 소변을 채울 수 없어 적은 소변 양에도 요의를 느끼게 되고(빈뇨), 또 천천히 늘어나지 못해 소변을 참기 힘들어져 급박뇨가 발생한다. 적은 양을 여러 번 보고도 지속적으로 방광에 더 힘을 주게 되면 방광의 근육은 계속 더 두꺼워지는 악순환이 된다. 방광의 근육이 더욱 두꺼워지고 지속적으로 힘을 주면 방광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소변 배출이 안 되어 잔뇨가 남게 되고, 이후에도 치료 시기를 놓치면 방광 기능은 회복되지 못하고 급성 요폐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까지 손상된 방광 기능을 치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나빠지기 전에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증상의 심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 전립선 증상 설문지를 통해 문진을 하는데, 이어 직진수지 검사로 전립선을 만져 보거나 초음파를 통해 정확히 얼마나 비대해졌고 그로 인해 요도가 막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감염이나 출혈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 검사를 하며 비대해진 전립선이 드러나거나 남성이 소변 폐색 증상을 갖고 있으면, 혈중 전립선 특이항원(PSA) 수치를 측정하여 전립선암 가능성을 검사할 수 있다.

소변 폐색 증상을 보이는 남성은 소변 흐름의 양과 비율을 측정하는 요속 검사를 실시한 후 방광이 어느

정도 완전하게 비워졌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방광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다.

전립선 비대증이 발병했을 때는 정확한 원인을 찾고 진행 정도에 따라 먼저 약물치료 혹은 빠른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당수에서 약물치료 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으나 증상이 회복되더라도 약물 중단시 다시 서서히 악화되므로 방광 기능의 유지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립선 수술은 내시경적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수술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대해진 전립선 부분을 레이저로 절제해 주는 방식인데 수술 시간은 전립선 크기에 따라 30~90분 정도 소요되며, 수술 초기엔 요실금 및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마취가 필요하고 소변줄을 며칠 거치해야 하는 불편감은 조금 감수해야 한다. 최근엔 마취가 필요 없고 입원이 필요 없는 전립선 결찰술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전립선이 매우 큰 경우엔 효과가 거의 없어서 잘 판단해서 수술법을 결정해야 한다.

전립선을 건강을 위해서는 전립선암에 대해 탁월한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토마토를 권하는데, 생으로 먹는 것 보다는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이외에 녹차·공등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으로 증상이 발생해도 나이 탓으로 생각할 수 있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 이상이 느껴지면 곧바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기고

'공업도시' 광양에 전문 인재육성 학교 설립을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원

다. 교육·경제활동·출산·출산 등 향후 지역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면 인구 감소를 넘어 도시의 미래를 기약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전남의 청년 인력 유출로 인한 경제력 유출 규모는 2014년 1476억 원, 2016년 993억 원, 2018년 111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역 내 경제 규모를 가능하는 지역 내 총생산(GRDP) 규모로 따지면 0.1~0.2% 수준으로 청년들의 역의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청년들의 역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산업 기술 인재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재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문 교육 기관이다.

지역 전문 교육기관은 지역 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고 취업한 근로자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많아지면 지역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인력이 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대학은 인재 육성에 연속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재직자 교육, 직무 심화 교육, 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포항의 경우는 포항제철공고와 포스텍(포항공대)이 제철 관련 업체에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광양제철이 들어온 지 40년이 넘는 광양에는 공업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 기관이 없다. 그래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순천·여수로 가거나 절강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는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

공고, 충남 당진에 있는 합덕제철고로 진학해야 한다.

이로 인해 기업·지자체·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사업 운영과 체계적인 인재 양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초 교육부는 총 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직업계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광양제철 등 다양한 산업체를 보유한 전남이 빠져 아쉬움이 크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과 맞춤형 교육 과정 구성을 위한 전문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설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광양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광양시는 지난 40여 년간 단일 제철소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제는 광양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으로 포스코케미칼 양극체 공장과 포스코 2차 전지 유가 금속 추출 산업 및 리튬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세계 1위 제철소의 명성을 이어가고 미래의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문 인재 육성으로 광양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된 공업 고등학교와 대학교 설립을 공론화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전문 인재 양성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社說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정해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자연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을 심본 감안해 달라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 대부분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 조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그제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부분의 위원이 이번에도 이 시행령을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권익위는 코로나 사태 이후인 지난해 추석과 설 명절에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내수 경기를 진작한다는 취지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잦은 시행령 개정

에 따른 우려가 커져 이번 추석에도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권익위의 입장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농축수산물로 뇌물을 주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느냐. 농어민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전남도 역시 명절에 과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농축수산물 대부분이 이 시기에 소비되는 만큼 농어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선물 한도 상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절 선물 가액 조정의 소비 확대 효과는 농식품부 조사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 소비는 48.6%, 가공식품 소비는 32.6%나 늘었다. 올해를 전남 농어민들은 폭우와 폭염 등 기상재해로 수백억 원대의 농수산물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권익위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국회 또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더욱 정교해진 '문자메시지 사기' 조심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수법이 보다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요즘엔 코로나19 장기화로 백신접종이나 재난 지원금과 관련한 공식적인 행정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이 판을 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스미싱 범죄는 벌써 총 45건(광주 13건·전남 32건)에 이른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전 스미싱은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결제 승인 문자가 온 것처럼 속여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근래에는 주로 쓰는 앱의 할인 쿠폰에 링크를 걸어 거짓 문자를 보내거나 비트코인 열풍에 편승해 암호화폐거래소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졌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에는 질병관리청을 사칭해 '여분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하십시오' 같은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 특히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문자 메시지 속 링크를 누를 경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증명서 앱과 똑같은 가짜 앱 설치 화면으로 접속 인증에 필요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만약 안내에 따라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모든 정보가 범포 조직에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갈수록 진화하는 스미싱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 당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가 담긴 문자는 바로 삭제해야 한다. 당국 역시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독일 작가 케테 콜비츠의 작품은 한 번 보면 결코 잊히질 않는다. 아들과 손자를 모두 전쟁으로 잃었던 그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슬픔과 고뇌가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세계민중만화전'에서 만난 '씨앗은 짓밟혀서는 안 된다'란 작품도 그랬다. 열매 꺾이지 씨앗을 보호하듯 어린이들을 품안에 꼭 품고 있는 여성의 강인한 팔뚝과 의연한 표정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던 기억이 있다.

도미야마 다에코

이날 전시장에는 '어머니의 절규'가 담긴 또 다른 작가의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었다. 일본 도미야마 다에코(1921~2021)가 '80년 5월 광주'를 소재로 작업한 만화 연작들이다. 그중 희생자 앞에서 오열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광주의 피에타' 앞에서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강렬한 붉은색 배경에 처절한 얼굴 표정이 너무도 생생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도미야마 다에코가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끝까지 묻고 광주의 오월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렸던 그녀는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양심적인 예술가였다. 무엇보다 도미야마는 광주에게는 있을 수 없는 작가다.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6월 한 달간 작업했던 '쓰러진 자를 위한 기도' 1980년 5월 광주' 연작 만화는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광주'에 등불과도 같은 작품이었다.

타계 소식과 함께 신문에 실은 작품을 고르기 위해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그녀의 작품 46점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하늘로 치켜세운 주먹 하나가 그려진 '오월'에서는 강인한 의지가

전시되고 있었다. 일본

의 도미야마 다에코(1921~2021)가 '80년 5월 광주'를 소재로 작업한 만화 연작들이다. 그중 희생자 앞에서 오열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광주의 피에타' 앞에서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강렬한 붉은색 배경에 처절한 얼굴 표정이 너무도 생생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도미야마 다에코가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끝까지 묻고 광주의 오월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렸던 그녀는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2-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